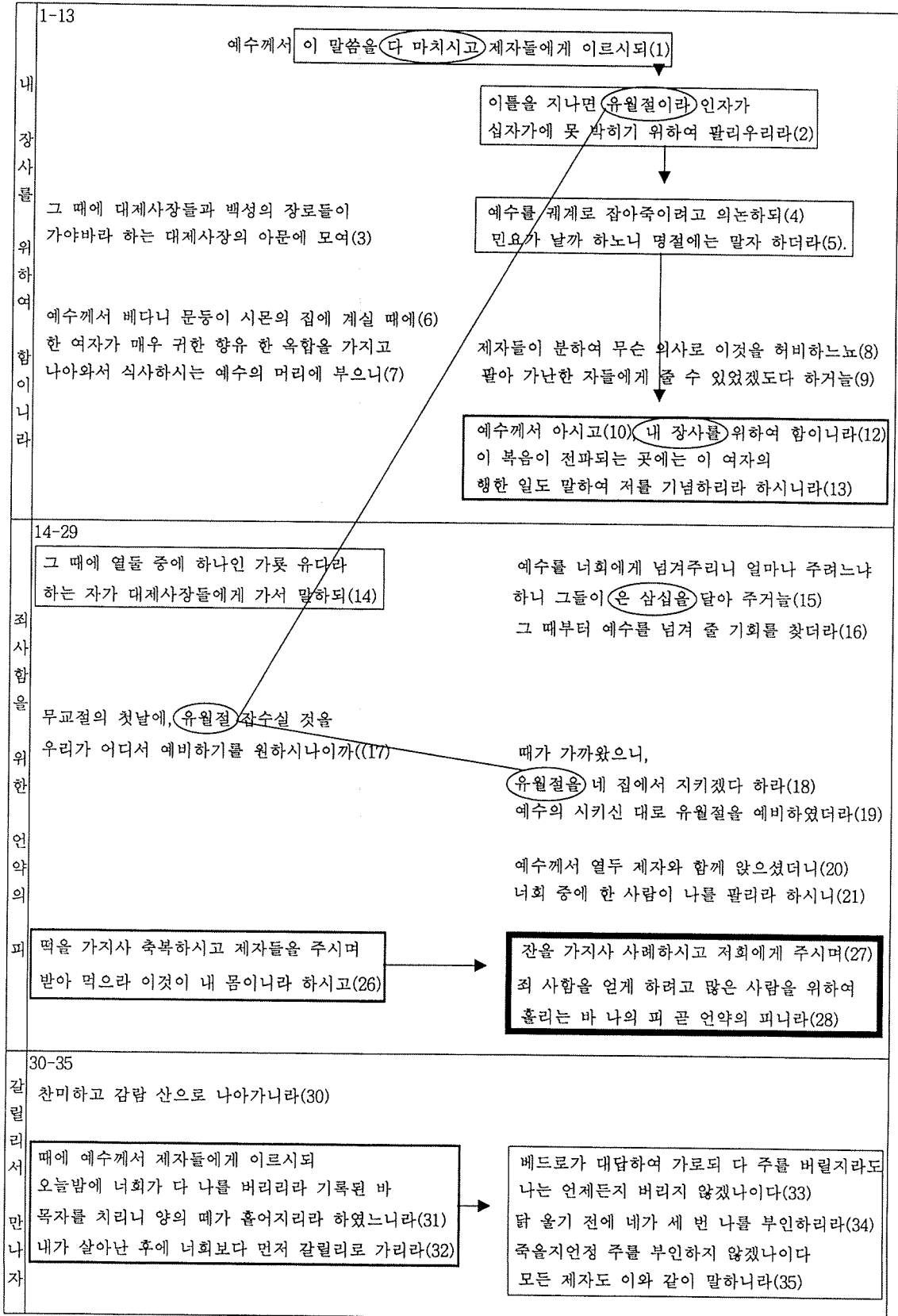


마태복음 26:1-35절 개관도표  
 주제 : 마지막 유월절과, 첫번 성찬



마태복음 26:1-35절, 마지막 유월절과, 첫 번 성찬

요절 :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6장은 주님께서 잡히셔서 공회에서 심문을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분량 상 두 문단(1-35, 36-75)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본 문단의 중심점은 “유월절”에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이 세 번(2, 17, 18) 등장하는데 모든 내용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sup>2)</sup> 하고, 유월절과 죽으심을 결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때가 가까웠으니”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17-18)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유월절이자, 첫 번 성찬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유월절이 어떤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있는 것일까요?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1-13) 내 장사를 위하여 합이나라  
둘째 단원(14-30)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니라  
셋째 단원(31-35)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첫째 단원(1-13) 내 장사를 위하여 합이나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1),

① 여기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한 점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다섯 번의 가르침의 묶음(5:1-7:28, 10:5-11:1, 13:1-13:53, 18:1-19:1, 23:1-26:1)을 다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다 마치셨다면, 다음은 무엇을 하실 차례인가?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2) 하십니다. 즉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20:28) 주실 차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 때가 가까왔다”(18) 하십니다. 이로 보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되 이 유월절 때를 맞추셔서 올라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과 죽으심”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전 5:7) 하고 말씀합니다.

②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계로 잡아죽이려고 의론하되”(3-4), 3절은, “그 때에” 합니다. “그 때에” 바삐 움직이는 자들이 있었으니,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잡아죽이려는 계계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월절 양”을 잡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하노니 명절(유월절)에는 말자”(5)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전국에서 수 백만 명이 모이는 때인 고로 예수를 선지자로 아는 이들의 민요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생각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될”(행 2:23) 때는,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 하나님의 정하신 뜻

①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6-7)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8)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기름을 부은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고, 분이 여긴 자는 가롯 유다(요 12:1-6)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논리는, 이 값비싼 향유를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유 말하는 사회구원론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② 저들은 “허비한다”고 말했으나 주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12) 하고, 제자들의 관심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집중을 시키십니다. 마리아가 이를 알고 행했느냐 하는 점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마리아가 기름을 붓고 있는 이 분이,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2) 하신, 죽임을 당할 “유월절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13)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 둘째 단원(14-30)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니라

“그 때에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14),

① 또 다시 “그 때에”(14, 3)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 때에”에 바빠 움직이는 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는 가롯 유다입니다. 그리고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요 13:2)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꺾으려고 유혹했으나 실패하자 “얼마 동안”(눅 4:13) 떠났던 사탄은, 베드로를 통하여 시험하려 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16:23) 하는 책망을 받았고, 이제 결정적인 때에 가롯 유다를 통해서 최후의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②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나 이까”(17) 하고 묻습니다. “무교절의 첫날”(17상)이라 했으니 이 날은 니산월 14일, 곧 “이달 십사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출 12:6)한 날입니다. 33년을 간직해두었던 어린양을 잡을 날이 돌아온 것입니다.

③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20) 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눅 22:15)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고 원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출 12:14) 명하셨는데 언제까지 지켜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④ 이 밤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최후의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만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1500년 동안이나 대대로 지켜 내려오던 유월절이 참 것으로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히 9:10). 이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말겨둔 것이라

- ① 주님은 유월절 석상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26) 하십니다. 규례대로 한다면 유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다”(출 12:8)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인 이 밤에는 “유월절 양”에 관한 언급은 4복음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양의 고기가 놓여있던 그 자리를 “내 몸, 나의 피”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있는 것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27-28) 하십니다.
- ② 주님은 지금까지 “말씀”으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9:13,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20:28)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1),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고기 대신에 “내 몸, 나의 피”라 말씀하시는 첫 번 성찬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 ③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피”는 생명을 의미하지만, “흘린 피”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흘린 피”만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밋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히 12:24) 하고, “뿌려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하면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밋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히 9:18-19)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출 12:6-7)고 명하십니다. 왜 발라야 하고 뿌려져야만 하는가?
- ④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출 12:13하) 하십니다. 백성들 보라고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 피는 집안에 있는 자들이 볼 수 없는 문 밖에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뿌려진 것입니다. 여기 복음의 진수(眞髓)가 있습니다. 뿌려진 “피가, 너희”에게 어떻게 효험(效驗)이 되는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피” 자체만을 보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를 통해서 너희”를 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도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습니다. 다만 유월절 양이 대신 죽었을 뿐입니다.
- ⑤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묘사가,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롬 3:19, 9)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율법을 통해서 보신다면 어떻게 되는가? “죄 아래”있고,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피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롬 6:14)의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단원(31-35)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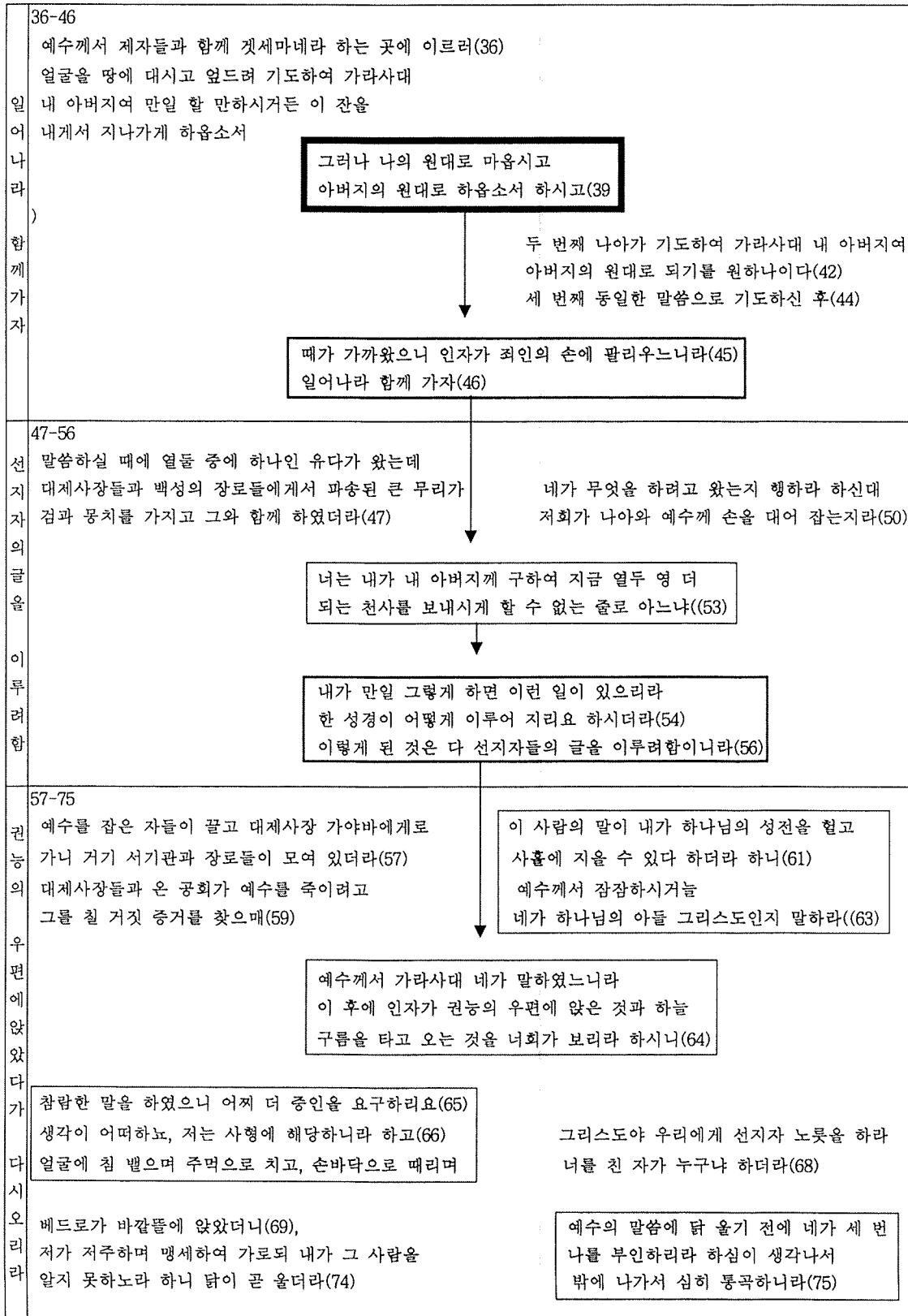
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31).

① “기록된 바”란 스가랴 13장의 인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이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를 타고”(9:9) 입성하실 것과, “은 삼십”에 팔리실(11:12) 것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도 “기록된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 목자를 치셔야만” 했는가? 치시게 되면,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슥 13:1, 7)가 가능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除)하리라”(슥 3:9 하) 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이점을 다니엘도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永續)된다”(단 9:24)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롬 1:2)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말씀은 구속사역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② “그러나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32) 하십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시신을 찾는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28:6-7) 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③ 베드로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35) 하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다짐이 진심이였음도 알고, 그러나 얼마나 힘없이 무너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것처럼 나약했던 그들이 그 후에는 돌아 맞아 죽으면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주님을 증거한 사실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요 13:36). 이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이 하신다((19:26)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6:36-75절 개관도표  
주제 :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6-75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절 :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26장의 두 번째 문단의 중심점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39),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배신(47)하고, 대제사장과 온 공회(59)가 음모를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린(51) 베드로의 생각처럼 힘이 모자라 그렇게 되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20:28)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속교리를 부인하는 현대주의 신학자들의 말대로 하면 주님은 힘이 모자라서, 또는 무저항주의자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53-54).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베드로를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행 2:23),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36-46) 일어나라 함께 가자

둘째 단원(47-56)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

셋째 단원(57-75)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가 오는 것을 보리라

첫째 단원(36-46)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겐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36).

① 본 단원의 중심점은 겐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는 현장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변화산상의 현장에도 이 세 제자만을 대동하셨습니다. ㉠ 아버지와 영교(靈交)에 방해를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후일에 이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 제자를 대동하셨다는 점입니다.

②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37-38) 하십니다. 양식사(樣式史) 학파(學派)들은 복음서들이 제자들에 의하여 미화(美化)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대로라면 이런 장면은 결코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우리와 꼭 같은 연약에 쌓여있는 “인자”(人子)를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③ 이점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

도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또한 한 모양으로 철육에 속하심은”(히 2:14)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있는 대체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셔야만 했는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히 5:8) 하고, “순종”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첫 인류의 대표자로 세움 받은 아담이 불순종하여 넘어진 타락의 현장으로 인도해줍니다.

④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8-19),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하십니다.

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39)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기도를 세 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씨름을 하셨는가를 말씀해줍니다. 인류의 첫 대표자들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기 전에 이런 몸부림이 없었습니다.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하심,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주님은 고민하셨지만 끝내 “순종”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⑥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찌하여 자기 아들이 고난 받기를 원하셨단 말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사 53:10). “그 씨”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이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또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사 53:11). 이는 “의롭다 함”, 곧 칭의를 의미합니다. “중생과, 칭의”,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지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고난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⑦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이”(롬 8:32)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롬 3:25), 갈보리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의롭다함을 얻게)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합니다.

⑧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45)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시 57:7)라는 뜻입니다.



⑨ 그러므로 말씀하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46). 주님은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죽음을 정면으로 맞으러 나가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통쾌합니까? 주님의 승리를 의지하여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5-57), 우리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 둘째 단원(47-56)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

“말씀하실 때에 열 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47).

① 본 단원은 예고하신 대로 주님이 결박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무리의 선두에는 “열 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있었습니다.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대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49-50) 합니다. 이렇게 하여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시 41:9) 한 예언도 성취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요 13:18).

② 주님은 베드로의 저항을 만류하시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54) 하십니다. 주님은 기록된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집중하심을 봅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까지도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요 19:28)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③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언약, 예언, 모형, 그림자, 예표” 등이 그리스도에게서 남김없이 성취되었음을 증거 해야함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설교자의 몫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친히 하신 방법이 이것입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눅 24:44)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證明)”(행 17:2-3)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신구약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④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55-56).

#### 셋째 단원(57-75)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가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57).

① 본 단원의 중심점은 주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재판과 정치적인 재판,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59-61) 하고 증언합니다. 이는 거짓 증거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성전을 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을 뿐입니다. 이는 성전 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2:19-22)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주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일 증거를 찾지 못했으면 이런 억지 증거를 다 말했겠는가?

② 이제 초점은 예수가 어떤 죄를 범했느냐 하는 문제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왜 왔느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음서가 증거하려는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63) 합니다. 주님은 이제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 53:7) 함과 같이 아무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에도 주님은 침묵하실 것인가?

③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64) 하십니다.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을 아시면 서도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에는 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다”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심으로 마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 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64하) 하십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④ 시편 110편에서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1),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5) 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단 7:13) 예언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 죽으심과, ㉡ 다시 살아나심과, ㉢ 승천하심과, ㉣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과, ㉤ 다시 오실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 가장 힘있게 증거한 말씀

① 주님의 “우편 재위”는 초대교회가 가장 힘있게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힘있게 증거되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행한 베드로의 첫 설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 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2-36) 하고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②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

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니 이보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달리 무엇이 있단 말인가? ㉠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행 7:56) 하고 외쳤습니다. ㉡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히 8:1) 합니다. ㉢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 합니다. 구약성경의 단일 구절을 신약성경에서 직간접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인 것만 보아도 그 중요함과 무게를 알 수가 있습니다.

㉣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65상) 합니다. 대제사장의 말은 자기모순입니다. 보통 인간이 이런 말을 했다면 “참람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묻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런 말을 해도 참람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자신들의 이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된 말씀을 상고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경건과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히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눅 11:52) 하신 성경을 곡해한데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65하-66).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67-68).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내어주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렘 5:1)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또 그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57) 앞에서 재판관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만일 가야바가 그 “한 사람”이 되었었다면 예루살렘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 이제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였다 해도 나올 것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75) 한 대목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패했을 경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히 통곡”, 즉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일어서는 일입니다. 가롯 유다에게는 이런 회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